

# 주부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 전문가, 운영자 및 실무자의 의견을 토대로-

## A Basic Study on the Fundamental Issues about the Housewife Education from the Experts' and the Managers' Perspective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기영\*\*

광주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교수 김선미\*\*\*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부교수 송혜림

우석대학교 가정복지학과

부교수 이승미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 : Lee, Ki-Young

Dept. of Family Welfare, Kwangjoo Univ.

Associate Prof. : Kim, Seon-Mi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lsan Univ.

Associate Prof. : Dr.oec. Song, Hye-Rim

Dept. of Family Welfare, Woosuk Univ.

Associate Prof. : Lee, Seung-Mi

### 〈Abstract〉

The 18 housewife education experts and managers suggested various elements about the fundamental issues about the housewife education through the open-end questionnaire. In this review we first examine the education's proper direction over the three dimensions of housewife herself, family and society. In the second section, we explore the contents and the specific programs of the education. In the third section, we discuss about the various aspects of program development and operation, for example, the time schedule, program operator or lecturer, and curriculum design. In particular, all the experts and managers emphasizes the needs of housewives and role of reproduced lecturer. In the last section, we revisit the strategies to vitalize the housewife education. They stressed the proper subjects, the encouraging methods to improve the participation rate and the government support.

△ 주요어(Key Words) : 주부교육의 방향과 내용(the direction and content of the housewife education),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the program developing and operating), 활성화방안(the strategies to vitalize the housewife education)

\* 본 연구는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협동과제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2001-042-D00094)

\*\* 주 저 자 : 이기영(E-mail : leek@snu.ac.kr)

\*\*\* 교신저자 : 김선미(E-mail : yupy1005@hanmail.net)

## 1. 서론

### 1. 주부교육의 필요성과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성차별적 노동시장의 특성과 가정 내 성별 분업적 특성에 의해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2년 현재 49.4%(통계청, 2002)에 불과하여, 취업하지 않은 대다수 기혼여성들은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 그리고 노부모의 봉양과 남편의 뒷바라지 등을 위한 가사노동을 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혼여성들의 가사노동은(김선미·이승미, 2000) 사회가 유지 존속되도록 보이지 않게 기여하는 중요한 노동이 되었고, 소비사회가 굴러가게 하는 중요한 소비기구역할 그리고 불충분한 복지제도를 지지해주는 완충작용을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전반이 지식정보화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가사노동의 사회적 속성들로 인해 주부들은 정보소외계층 또는 정보취약계층이 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 주관 주부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의 공헌으로 주부들의 인터넷 활용률이 예전보다 높아졌으나 여전히 이용률이 낮고(김미량, 2002) 이용하는 경우에도 상업적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식정보화가 주부들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부들은 여전히 개인적 지체감을 경험하고 그와 더불어 주부들의 주된 삶의 장소인 가정영역 또한 사회변화에 비해 지체된다. 그에 따라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통한 역할이 사회변화에 바람직하게 기여하도록 하는 데에도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바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동안 주부들에게 열려있는 교육의 기회는 아주 다양하였다. 김재인(2001)에 따르면, 그 가운데에는 여성발전센터와 농협주부대학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사회교육전담기관과 종합사회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 각 종교 및 사회단체 신문방송사나 종교 및 여성단체의 문화센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으로 이런 사회교육기관은 주교육대상이 여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접근이 평생교육시각에서 개인으로서 여성의 자질향상과 자기충족 그리고 직업훈련 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에 초점을 둔 여성사회교육의 차원이었으며, 그 주요 대상이 여성가운데 주부였을 뿐이었다. 한 편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민간 기업분야에서 문화센터라는 이름을 빌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를 보면, 주부들의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잘 파악하고 자녀 사교육서비스나 자녀돌보기 서비스 등을 잘 조합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기저에 상업주의적 생활양식을 파급하고 가정의 소비기구로서 주부들의 소비욕을 부추기고 소비기술을 전달했을 따름이다. 즉 문화센터의 주부교육은 데니스하트(2001)가 언급했듯이 상업 측에서 제공하는 상품학에 의존하는 현대적인 주부역할 가르치기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주부들로 하여금 지식정보화사회에 함께 공존할 수 있게 해 줄 참다운 대안으로서 교육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성차별적 사회구조에서 오는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켜

개인으로서의 여성을 세우려 했던 사회교육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는 주부들의 존재적 특성 즉, 개인으로서 여성 그리고 가족의 일원이면서 가정경영의 주체요 또한 사회의 일원이면서 사회적 역할을 할 인적자원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 입각하여 주부들이 현재 처한 모든 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목적의식적인 교육의 틀을 잡아나아가야 한다. 물론 기존의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들도 주부가 주요 대상이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프로그램과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에 가족관련 또는 가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으나, 개인적 차원과 가정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을 관통하는 철학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으며 그로인해 여러 가지 주부교육의 시도들 간에 통합과 조정이 부재했다. 그 결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교육수행자의 의도가 빈번히 상충했으며 급진적인 여성주의적 프로그램과 가부장적 성역할을 고정화시키는 보수적 프로그램들이 아무런 연관성 없이 산만하게 진행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되었다.

여성부가 행한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제고를 위한 추진 전략 연구에서는(김태홍·민무숙·김영옥·김선미·양순애·진미석·주재선, 2001; 201) 현재의 주부대상 교육프로그램들이 첫째 성별고정관념을 고착화하고 둘째, 지식·정보화사회의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도록 편제되어 있으며 셋째, 생애경로를 고려한 종합적인 인적자원개발체계 위에 서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한 문제제기 위에 2005년까지 시행될 국가 인적자원개발계획에서도 전업주부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지원의 3대 방안 중 하나로 전업주부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여건조성은 취업희망 주부인력의 개발과 활용 및 창업지원, 그리고 자원봉사영역에서의 고용창출과 각종 인정 보상제도의 마련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 때 국가는 첫째,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가정경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둘째, 주부집단별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셋째, 비정부기구(NGO)의 주부교육을 지원하고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성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중복기능을 조정하고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는 임무를 여성부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김태홍외, 2002; 284).

이에 본 연구는 주부교육에 대한 주부들의 필요와 사회적 필요가 지속적으로 주부교육의 증가를 가져오리라 기대하던서 올바른 기초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주부교육에 관한 논의가 기존의 관행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라고 볼 때 가능한 두 가지 방향은 바로 주부들에게 현황을 평가하고 요구를 표현하게 하고, 전문가와 실무자들에게 동일하게 현황을 평가하게 하고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자에 주목하여, 주부들을 주된 연구의 관심사로 삼아온 전문가들과 주부교육을 담당해온 실무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주부교육의 방향과 교육내용의 범주화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방식 및 주부교육의 활성화방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문제

위의 연구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둘째, 주부교육이 포괄해야할 교육내용의 영역은 무엇이며, 각 영역에 따라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셋째, 주부교육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

넷째, 주부교육의 활성화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문제에 상응하는 질문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부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주부교육의 정의와 함께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세 차원에서 주부교육의 필요성을 질문에 포함하였다.

둘째, 주부교육이 포괄해야할 교육내용의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세 차원을 제시하였다. 세 차원에서 다섯 개의 영역을 도출하여 여성인식, 여가·취미·교양, 가정경영교육, 시민참여교육, 직업교육의 다섯 영역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셋째, 주부교육프로그램의 이상적인 개발·운영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소요기간과 개발방식, 담당자, 대상세분화 및 교육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넷째, 주부교육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얻기 위하여 현행 주부교육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하게 하였다. 평가는 주로 방향과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말한다.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주부교육의 활성화방안에 관하여 네 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하였다. 거기에는 주부교육주체와 주부참여 확산방법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법 및 기타 의견이 포함된다.

## 3.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주부교육전반에 관한 전문가와 실무자의 의견들이 관한 연구가 없는 상태이므로 '발견'에 치중하게 하는 질적 연구(조용환,2002:20)를 사용하였다. 또한 주부연구집단과 주부교육실무자라는 모집단의 특성과 분포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은 질적 접근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제보자들의 시각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보여주고 제보자들의 언어와 논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공동연구자들은 제보자들을 직접 만나 질문을 설명한 후 응답은 문서로 작성하게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02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자로 주부를 주요 관심대상으로 삼고 있는 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원과 교수, 그리고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운영자와 실무자 등이 연구대상이 되

었다. 이 가운데 운영자 및 실무자집단의 선정기준으로는 김재인(2001) 박삼근(2001) 등의 여성사회교육기관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해서 운영주체(민관 여부/영리 비영리여부)와 운영목적(여성사회교육전담인가 주교육대상이 여성인가 등)을 고려하여 1) 여성회관·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발전센터 2) 백화점이나 언론사가 운영하는 문화센터 3) 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구나 동등 지자체 중심의 교육기관 4) 주부대학 등 각종 민간단체 운영의 교육기관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 8명과 운영자 16명이 선정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응답이 충실한 총 1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표1>에는 제보자에 관한 간략한 특징이 제시되어 있다. 다만 제보자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번호를 사용하였다.

<표 1> 제보자의 개인적 특징

일련 번호	사례 기호	소속기관	활동 내용 소개
1.	a	한국여성개발원	가족분과 연구위원,
2.	b	美홀리크로스대 강사	여성학 연구 및 교수
3.	c	21세기여성정보문화센터/K대 가정관리학교수	주부인터넷교실운영
4.	d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저소득층가정 자활특화사업 연구 및 기획
5.	e	C대 가정관리학 교수	여성 사회교육 요구도 등 연구
6.	f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원	전 녹색소비자연대 연구원 '자녀경제교육' 관련 사회교육 강사
7.	g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여성학강사 / 젠더가 삶에 미친 영향 연구
8.	h	주부클럽연합회	실무자
9.	i	주부클럽연합회	실무자
10.	j	서울 중부 여성발전센터	훈련팀직원
11.	k	서울 중부 여성발전센터	훈련팀장
12.	l	전주 YWCA	주부교육 기획·운영
13.	m	전북 평화동 종합사회복지관	주부대학 기획·운영
14.	n	전북 여성회관	주요 담당자
15.	o	서울 강남구 여성센터 대한 어머니회 서울시 연합회	관장 총무(성인여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진행)
16.	p	울산시 주부교실	실무자
17.	q	울산시 주부교실	실장
18.	r	한국소비자연맹	팀장

## II. 주부교육의 방향

주부교육의 방향을 놓고 제보자들은 주부교육의 정의가 무엇이며 그 필요성은 무엇인가에 대답하였다. 먼저 주부교육의 정의를 내릴 때 제보자들은 다양한 시각을 보이고 있고 서로 의견이 상충하기도 하였으며, 주부라는 개념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주부교육의 정의가 어렵다는 견해도 보였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개념으로, 실무자들은 효과로 정의의 기준을 삼는 경향을 보였다.

### 1. 주부교육의 정의

먼저 주부교육의 정의에 관한 제보자들의 답을 살펴보면, 기혼여성인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차원의 다양한 교육활동이라는 점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일반대학의 정규교양과목(b)또는 사이버대학 등 공식적인 교육과정도 포함한다는 응답도 있었다(e).

그러나 제보자들이 제시한 주부에 대한 다양한 정의로부터 주부교육에서 포괄해야 할 주부의 범주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제보자(a)의 경우에는 “기혼여성에는 유배우여성, 이혼여성 또는 사별여성이 있고, 연령으로 보아 20대 후반이후가 이에 속하며 경제활동별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로 나눌 수 있으며 전업주부 가운데는 구직의사가 있는 잠재적 취업주부도 있으며 그 외에 계층별로 주부는 판이한 성격을 지니는 집단”이라고 보고 있다. 제보자 (b)의 경우 “협의에서는 기혼여성을 광의에서는 주부역할 즉 가정관리자 역할을 하거나 할 사람을 대상”으로 보아 남성이 배제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제보자 (c)과 (k)의 경우에는 ‘전업주부’를 주부교육의 대상으로 특정하되 제보자 (k)는 ‘대부분 여성인 전업주부’이라는 표현을 통해 있을 경우 남성전업주부도 주부교육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상을 기준으로 한 정의들의 대안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비공식적 교육활동과 모든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식·비공식 교육활동 또는 전업주부 취업주부 남성전업주부 또는 남성 가정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제보자들이 주부교육을 정의할 때 두 번째로 고려하고 있는 점은 바로 교육의 성격이었다. 제보자들은 주부교육은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주부자신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재교육’이고(f), ‘사회활동기회제공의 통로가 되며’(8) ‘평생교육차원의 교육활동이요,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의 동기부여를 통한 유희인력 활용차원으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여성을 훈련하는 것’(o), ‘그 결과 여성 지위를 향상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김태홍의 6인(2001)이 취한 시각과 일치하는데, 그들의 시각은 ‘주부교육이 개인의 능력과 의식의 변화를 통해 주부개인의

행복과 가정경영을 합리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주부들의 취업과 창업 그리고 자원 활동 등 사회참여에 필요한 의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통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 2. 주부교육의 필요성

먼저 주부교육이 필요한가 및 왜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주부교육의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교육목표와 내용개념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점과 현행 주부교육에 대한 주부들의 낮은 관심도를 들어 주부교육에 대해 회의적이다.”라는 하나의 의견(a)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주부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주부교육의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첫째, 주부가 사회적 존재임을 부각하여 사회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의 향상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지를 들고 있다. 둘째, 성역할에 따른 기혼여성의 부담과 제약들과를 들고 있다. 셋째, 실무자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가족 내 주부역할을 통해 사회주부의 역할에 기여하도록 주부교육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가 급격하므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사회유기체와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며 인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와 방법을 획득하기 위해서…….”(f)

“우리나라에서 기혼 여성이면 실제로 가사노동을 면제받고 있는 경우에도 문화적으로 주어지는 성역할의 압력에서까지 자유롭지는 않다고 보고 성역할에 따른 기혼여성의 부담과 제약을 돌파하는데 필요한 교육은 다 주부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여성으로서 자아실현과 성역할 수행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지금까지 학교나 미디어에서 제공해 온 논리나 기술로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이다.”(k)

요컨대, 제보자들은 주부교육은 매우 필요하며 그 이유는 사회변화에 주부를 적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재교육,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그리고 여성적인 삶의 조건이 주는 제약극복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주부로서의 역할을 습득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3. 주부교육의 방향

주부교육의 방향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하여 질문을 하였다. 그에 대해 이와 같이 세 가지 차원의 전제야말로 전업주부의 존재를 상정한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주부교육의 방향을 다시 취업관련교육과 교양교육으로 나누고, 교양교육을 목표로 따라 개인과 가정과 사회로 나누자”고 제안한

의견도 있었지만(a), 대부분의 제보자는 세 가지 차원에서 모두 주부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세 차원이 상호 깊은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차원별로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세 가지 차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제보자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세 가지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이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러합니다. 출발점은 개인이 되겠지만 주부들의 욕구는 가정, 자녀 양육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 단체에서 교육을 해 보면 건강관련 강좌와 함께 자녀 교육 강좌에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개인과 가정, 사회가 서로 독립된 별개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예를 들어 교육의 방향이 개인으로 설정했다고 했을 때 자아 개발과 성장이라고 하면 그 때의 자아는 사회 속에 존재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아와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d)

“개인 가정 사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j)

“여성교육은 여성자신에게 자아성취감 자기개발 및 발전 여성인식함양 개인적 능력의 개발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p,q)

다음으로 세 가지 각 차원에서의 주부교육 방향에 대한 제보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 일상생활의 관리, 현대사회의 가정관리인으로서 부딪히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받기(b) 주부자신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및 사회변화 따라잡기를 통한 사회적 존재감의 획득 및 사회적 욕구의 성취(c,i) 건강·취미·사교 등 개인의 자아개발과 성장(e,f,h,i,o,r). 그에 더하여 기술습득·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와 조직과 단체 활동의 경험과 리더십을 향상시킴. 이를 통해 주부의 자신감을 높이기(e). 주부의 교육 욕구충족(h) 자아개발 능력개발 경제력 향상 독립적 자아성장(k). 취미·교양교육(m)

나) 가정 : 가족은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닌 하나의 시스템이므로 주부교육도 체계론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주부개인의 적응과 성장은 주변 환경이나 가족구조와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주부교육의 목표는 가족이란 체계의 복지와 건강(b). 주부의 성장을 통한 자녀의 인성과 가정생활의 질 향상(c,i) 남편과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가족관계의 질이 향상됨(e). 기타 재무 소비자정보 가족치료 등 정보획득을 통해 가정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함(e,f). 배움이 있는 발전하는

가정(h). 주부의 욕구충족을 통한 가정의 행복과 평화(i, o).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지원체계로의 가족 변화(k). 생활의 활력제공(m). 가족원과의 조화(r).

다) 사회: 주부를 주변인이나 이등시민 또는 무급노동력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존중해야함. 그러자면 우선 주부의 시각과 자결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단체보다 시민단체와 씨클, 공동육아그룹, 소규모 품앗이 단체 등이 많이 늘어나야 함(b). 국가가 주부를 사회적 필요자원으로 인지하여 주부교육을 사회적 차원에서 주도함(c). 사회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변화의 주역으로 길러낼 수 있고 주부교육을 통한 생활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의 토대가 되게 함(e,h,i).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유기체와 상호작용(f,o). 고급인력의 사회적 기여 기대(i) 여성의 능력개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평화와 생명, 돌봄, 공존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의 변화(k). 집단 활동을 통한 자아성취와 사회활동의 기반(m,r)

이와 같은 의견들을 각 차원별로 요점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차원에서 주부교육의 방향은 첫째, 취미·교양교육 등으로 주부들의 교육적 욕구를 해소하며 개인적 성장을 도모하며 리더십 증진 등을 통해 주부개인의 자신감을 향상하고 둘째, 일상생활과 현재 가정관리인으로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 셋째, 기술습득을 통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집단 활동을 통한 사회활동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가정 차원에서 주부교육의 방향은 첫째, 가족관계 기술을 개선하고 둘째, 가족체계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하며 셋째, 가정의 주요 책임자인 주부들의 교육활동참여를 통해 가정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가정의 성격을 배움이 있는 발전하는 가정으로 바꾸며 주부의 욕구성취를 통한 가정의 행복을 도모하고 넷째, 정보소외계층인 주부의 정보력을 향상시켜 가족구성원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사회 차원에서 주부교육의 방향은 성역할에 따른 기혼여성의 부담과 제약을 돌파하고 둘째, 주부교육을 통한 사회참여촉진으로 평화와 돌봄 공존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며 셋째,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주부의 역할을 획득하고 하고 고급인력의 사회적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요컨대 제보자들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라는 다양한 세 차원에서의 주부교육의 잠재력을 근거로 주부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교육방향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제보자집단의 의견을 볼 때, 전문가들은 세 차원이 포괄되어야 함을 보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방향도 성역할제약과 관련한 모순의 극복이나 주부들의 장점에 근거하여 그들의 시각이 반영되며 인간으로서의 자결권이 존중되는

시민단체와 소집단의 참여 등 근원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 편, 실무자들은 비교적 지역사회발전과 사회변화의 동인으로서 주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개인과 가정에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II. 주부교육내용의 영역과 프로그램

#### 1. 개인·가정·사회의 세 차원에서 본 주부교육내용

먼저, 본 연구의 질문에 따라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된 교육내용의 범주에 관한 논의를 다루어 보자. 첫째, 예로 제시된 세 가지 차원의 구분에 대한 거부감이 세 명의 제보자에 의해 표현되었다(a,b,d). 그 이유는 주로 세 차원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교육의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세 차원의 구분이 아닌 상호 구분되는 다른 차원의 구분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제보자(d)가 지적하는 상호 구분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응답으로부터 본 논문의 연구자들은 교육의 방향에 있어서 고려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라는 세 차원이 교육내용의 설정에서는 타당성이 감소함을 시사 받았다.

(1) 정보·기술 차원: 가정경영교육 (가사노동, 가정경제 및 소비, 자녀양육, 부부간의 의사소통 등에 관한 기술과 정보), 건강 정보, 직업교육, 취업 준비, 법률 정보

(2) 문화 차원: 여가, 취미, 교양, 건강 관련 강좌

(3) 의식 차원: 여성의식, 시민참여, 역사의식, 정치의식, 통일 의식.

둘째, 제보자들은 기존의 주부교육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한 암묵적인 비판과 함께 새롭게 포괄되어야 할 교육의 범주를 제시하기도 했다. 제보자(b)는 “변화하는 경제구조와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처하고 이혼증가와 기혼여성취업증가 및 자원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망 등에 주부들을 대처하게 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별히 개인 가족 사회로 범주를 나누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례적인 내용 외에 새로 개발해야 할 교육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 교육과 취업교육, 재취업준비 및 적응 교육 등 변화하는 경제구조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처하게 도와주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예전식대로의 노후계획이나 가계관리교육은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혼율이 이제 40%를 넘어섰습니다. 이혼과정 및 재혼가정의 적응과 성장에 대한 교육이 절실합니다. 건강교육, 성교육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 많이 있습니다. (기혼여성 인공유산율이 30-50%라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자원 봉사활동 기구가 지역단위로 많이 늘어나야 하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들의 기획과 교육이 필요합니다.”(b)

또한 제보자(g)는 “가정경영과 재취업기술 등 기존의 분류를 따르는 교육내용보다 문제를 보는 방식자체를 바꿔줄 의식교육을 위주로 하는 내용편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주부들에게 가정경영에 관한 기술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가 유포되어 있다. 또한 재취업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도 여러 가지 민간과 공적 기관 베이스(base)의 프로그램들이 있다(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따라서 현시점에서 더 절실하고 유용한 교육은 문제를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주는 이른바 의식화 교육, 또는 일종의 내공수련 교육이라고 본다. 여기에는 자녀 양육이나 부부의사소통에 관한 기본소양교육이나 사회의식, 정치의식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다 포함된다.(g)“

여성발전센터 실무자인 제보자(j)은 ‘현재 여성의식과 여가 취미 교육 분야가 주임을 비판하고 사회주부 및 사회참여형 시민으로 바뀌기 위해 여성의식을 보다 더 함양하고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통한 전업주부들의 사회 재진입에 기반이 될 직업 교육과 시민참여의식 교육이 포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보자(q)은 ‘가정생활운영전반에 걸친 정보제공과 역할교육, 취미·교양교육, 취업·부업·창업 대비 기능교육 등으로 교육내용을 구분’하고 있다.

세 차원에서 교육내용을 제시하기를 거부한 제보자들이 주부교육내용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나름대로의 근거를 들어 전개하고 있다. 정보기술, 의식, 문화의 세 차원으로 구별된 범주를 세부적인 교육내용과 더불어 제시하기도 하고, 사회변화에 적응하거나 사회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의 성격을 보면서 그에 걸맞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열거하기도 하며 기존 교육에서 시도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고 보는 시각교정을 위한 의식교육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기도 주부들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을 비판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편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세 가지 차원의 예시를 떠나 주부교육의 방향을 논의한 몇 가지 특징적인 의견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예시를 따라 개인·가정·사회로 나눈 차원별로 제보자들은 주부교육의 내용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참 역할 획득을 위한 내용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n)는 시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개인** --- 여성들의 건강관리가 중년여성들의 관심과 이를 호도하는 매스컴에 대한 반대담론의 형성 필요에 따라 요구되며 공식적인 활동요령과 리더십이 필요함(a). 자아개발을 통해 자신감을 증진하고, 교양, 취미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에 관한 내용, 여성의식 및 주민의식 향상을 위한 내용기술의 습득,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내용(e). 배움의 욕구충족 및 사회참여(h). 지적 욕구와 선진시민 의식(i). 여성의식향상 교육, 리더십 향상교육, 능력개발교육(외국어, 건강, 미술, 음악 등등), 기술교육(k). 사회활동을 위한 재교육(l), 취미 교양교육(m). 여

가, 취미, 문화, 생활, 교양교육(o). 여성의식, 취미, 교양(p). 경제인으로서의 소비자교육(r).

**가정** --- 가족의 건강관리(a). 가정생활 향상을 위한 교육, 현실적인 재테크 등(e). 바람직한 가정 만들기(환경적 측면, 생활 개혁적 측면, 소비적 측면). 자녀교육·부모역할교육, 가족갈등해소, 직장-가정 양립 방안 및 기술, 가사노동, 가사 관리 기술 향상 및 과학화, 효율화 방안 등(k). 부모자녀교육, 부부교육, 자녀양육, 상담, 공동체훈련프로그램, 환경교육(o). 자녀교육, 가정경영(p).

**사회** --- 시민참여 및 자원봉사에 관련된 내용(e).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 모니터 교육을 통한 사회참여(h). 직업훈련(o). 직업교육, 부업교육, 여성의 정치세력화, 경제활동참여, 자원 활동 등 사회참여 방안(k). 자원봉사를 위한 소양과 복지교육(c. l). 집단 활동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의식 강화(m). 사회참여교육, 직업재창출프로그램, 인간관계(p).

## 2. 각 영역별 바람직한 프로그램의 예시

위의 세 가지 차원에서 포괄되어야 할 주부교육의 내용을 생각해 보게 한 후 응답자들에게 기존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의 주요 영역이었던 다섯 가지 영역을 나열하고 각 영역별로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다섯 가지 영역으로는 여성의식과 여가·취미·교양, 가정경영교육, 시민참여교육 및 직업교육이 있으며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응답자들이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여성의식 영역** : 여성의 주체성, 도구화된 모성의 비판, 모녀관계의 성찰, 여성과의 연대를 통한 가부장제의 극복(b).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프로그램, 남녀동등 성의식 프로그램,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사강좌(c).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나의 생활 속의 여성 문제), 자매애-다른 여성의 이해하기 (동성애, 매매증, 여성노동 등), 집단 상담을 통한 자기 치유, 자기 강화, 스트레스 해소법, 자기 표현법 등(d). 가정 내 여성의 역할, 가사노동의 중요성과 가치평가, 부부재산 공동명의제 등(e). 성차별사태, 남녀평등에 대한 역사적 고찰, 21세기적 여성상과 남성상(f). 주부여성학, 여성으로서 나의 자아성장(g). 남녀평등 교육, 여성의 권리(h). 다양한 자기표현 및 건강강좌, 각종 미디어(사진, 영상, 연극 등), 미술, 음악, 공예, 서예 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 언어를 개발하여 여성 주의적 자기표현방법을 개발하고 여성들이 겪는 고통과 억압을 분석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강좌.. 건강강좌는 여성의 몸과 아름다움을 기존의 시선으로 대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한 튼튼한 체력 만들기 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k).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정치교육,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교육 등

(l). 성평등의식 제고 프로그램(n, o). 자기계발, 스피치교육(p). 자기계발과 자기성장 집단상담(q)

요약하면, 이 영역에서는 여성의 주체성과 자기성장을 위한 치유 및 능력개발, 가정과 사회에서의 양성평등의식, 사회참여를 위한 공식 활동의 기술 즉 자기표현법과 리더십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제시되었다. 한 편 그 동안 한국적 현실을 외면한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식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한 새로운 구성을 강조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위한 제반기술과 리더십훈련을 강조한 제보자(a)의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보자(a)의 경우 한국여성개발원의 가족분과위원회 연구원으로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삶의 질 향상을 깊이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와 관련된 실험을 생활 속에서 시도하고 있다.

“ 또 여성의식의 경우 이 부분은 현재 한국 사회 현실에 맞추어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여성의식이 있는 경우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나 친척관계나 사회적인 영역 모두 본인이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또 여성의식에 있어 여성들이 오히려 더 보수적인 경우도 많이 보았거든요. 사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경우 페미니즘적인 기반에서 출발한 상담에 대해 비판하면서 오히려 폭력가해자인 남성들이 여성주의 상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등 가해자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예도 있었는데..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성의식 관련 교육 내용이나 프로그램은 그만큼 잘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의식 관련 내용은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역할을 고정된 역할로 보지 않고 자녀와 부모가 동등하게, 성별 구분 없이 가족의 일을 평등하게 해나가는 그런 내용 등은 특별하게 여성의식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가족생활에서 무의식중에 배우게 되는 성별구분에 대한 잠재적 사고나 의식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면서 배울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더욱 좋겠지요.

최근 여성들도 각종 공식석상에서 활동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회의기술이나 문서 작성기술, 예산이나 회계관련 기초지식, 공식적인 활동에서 문제 발생시 대처 요령, 리더십에 대한 것 등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아파트 부녀회 임원이나,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비해 공식적인 활동과 관련한 경험이 부족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 회의도 못하는 여성이라는 비난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파트부녀회장을 맡아 전체 부녀회 임원회의에 여러 번 참석해본 저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여 일처리에 미숙함을 보이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파트부녀회의 경우 최근 알뜰장이나 각종 부녀회사업을 통하여 많은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기본적인 회의기술조차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

하기도 합니다.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경우도 예산심사나 각종 현안 토의 때 핵심을 잘 파악 못하거나 회의시 발표미숙으로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예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학부모회의 경우도 그냥 모여서 수다 떨다가 돈만 내서 가사일과 동일한 잡일만 하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지요. 학부모 단체는 학교의 잡다한 일을 도와주기 위해 구성되는 것으로 주부교육과 다른 맥락이 있는 부분이지만 주부들이 이러한 공식적인 활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부들은 선거 때도 그냥 동원되는 자원으로 취급받는 현실과 아줌마의 발언은 무조건 무시하는 경향에 대해 썩기를 막으려면 주부들이 공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적인 활동도 그냥 동창모임처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경험상 뭔가 토의안건이 있어 모이는데 토의는 뒷전이고 수다만 떨다가 대중 결정해버린다는 건 결국은 또 모여야 한다는 건 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십훈련은 주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나 각종 모임이나 주부가 속한 단체에서 리더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리더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를 가지게 된다면 주부들이 역량을 키우고 가정에서도 당당한 엄마로 부인으로 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a)

**여가·취미·교양 영역** ; 청소년 성교육, 자녀와의 대화, Marriage Encounter, 건강관리, 노인 봉양자에 대한 심리적, 기술적지식 (b). '즐거움 삶'에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 취미활동을 통한 적성개발 프로그램(c). 풍물, 노래, 등산, 영화,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 요가, 수지침, 한방교실, 컴퓨터 교실, 영어 등 어학교실 등(d). 다양한 여가활동 소개, 취미, 교양 프로그램 단, 이미 너무 많음(e). 건강 및 운동관련 프로그램(f,i). 뜨개질 양재(h). 여성 주의적 의식 향상, 자립적이고 평등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기술(우리센터에는 “자아성장프로그램”, “여성건강교실”이 있음), 여성학, 여성의 리더십향상을 위한 교육(우리센터에는 “화술/스피치”, “이미지 메이킹”, 다양한 외국어 전문과정, “메이크업 & 코드” 등이 있음) 등(k). 자기개발을 통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주부노래교실, 글쓰기 모임, 독서모임, 그림, 도예 등(l). 스포츠 마사지, 분재와 꽃꽂이, 메이크업(m). 글로벌 시민으로써 갖춰야 할 교양프로그램(n). 외국어, 정보화교육, 요리, 공예, 현장체험, 음악, 미술, 실내장식, 기공, 명상, 요가, 역사(o). 우리 춤, 댄스스포츠, 영어, 일어(p). 미용, 체육, 수공예관련, 어학(q).

여성의식과 여가 취미 교양 영역은 개인 차원에서의 교육프로그램들로서 제보자들이 제시한 프로그램들이 다소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교육프로그램들의 분류는 여성의식과 여가·취미·교양을 주부개인의 차원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들로 함께 묶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가정경영교육 영역** ; 소비자교육, 가계관리, 노후대책 설계법(b). 올바른 자녀양육법, 광인터넷 사회에 적응하는 홈네트워킹 시설에 관한 정보교육, 전자상거래, 주식 및 채테크, 금융관리 교육, 전자행정서비스 활용교육(c). 자녀 교육, 자녀와 의사소통하기, 좋은 엄마(아빠)되기, 부부간 의사소통, 생활법률, 생활세무 등(d).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대화법, 채테크 및 시테크 등(e). 자녀양육, 부부관계회복, 가족치료, 재무관리 및 소비생활정보활용(f). 바람직한 모자녀관계, 평등한 부부관계(g). 바람직한 소비문화, 생활에 필요한 법률상식(h). 경제적 윤리적 가정경영을 위한 능(i). 컴퓨터(h,m). 자녀교육, 부모역할교육, 가족갈등해소, 문제해결, 치료 기법 등(k).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 부부집단프로그램(n). 환경, 소비자교육, 부부대화기법, 자녀교육, 가족관계프로그램(o). 소비자교육(경제 + 사회)(r).

가정경영 영역이라는 한정된 영역을 제시했을 때 제보자들은 주로 소비와 재무를 중심으로 한 경제생활과 가족관계 및 생활법률 그리고 컴퓨터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였다. 이는 가정차원에서 제시된 교육내용보다 훨씬 좁은 범위에 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없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필요한 제반 프로그램들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시민 참여 교육 영역**; 환경, 통일,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센터, food pantry(b). 환경보호 프로그램, 기초질서 의식 프로그램, 봉사활동 프로그램(c). 역사의식, 세상을 보는 눈(정세 교육), 통일교육, 이주 노동자 문제, 환경교육 등(d). 자원봉사에 대한 것, 지역 내 사회단체의 활동, 정치참여교육 등(e). 민주주의, 자원봉사, 사회복지, 소비자참여(재활용)(f). NGO와 시민참여, 환경생태주의와 소비자 시민 등(g). 선거모니터교육, (호스피스, 영아 및 노인돌보기 등)자원봉사교육(h). 사회적 비판능력(i). 환경, 지역사회운동, 자원 활동, 정치참여 등(k). 여성지도자 교육(l). 자원봉사,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n,o).

시민참여영역에서는 자원 활동과 정치적 참여 및 환경과 통일 및 소비자 분야를 포괄하는 시민운동과 관련된 의식과 기술의 향상프로그램들이 주로 제시되었다.

**직업교육 영역**; 직장에서의 성차별 대응책, 재취업교육 및 상담(b). 지역적 산업기반을 기초로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인터넷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채택근무 직업 프로그램(c). 직업 기술 교육, 취업 준비 교육(직업 탐색, 미래 설계하기, 면접 기술, 이력서 쓰기 등) 직업인의 자세, 취업 시 알아야 할 노동법 등(d). 정보화교육, 각종 직업교육(e). 직업의식 및 취업관련 기능 증진 프로그램(f). 요리·양재·컴퓨터 관련교육(h). 노동단절을 오랫동안 경험한 전업주부들이 효과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해야 하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과정까지 포괄해야 함(k). 도배사, 출장요리사, 베이비 시터,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북어조리사, 구연동화지도사, 사무실



실무과정, 컴퓨터방문교사, 초등영어독서지도사, 초등논술지도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l,m). 소규모창업교육, 컴퓨터자격증반, 영아교보사, 보육교사, 한식, 양식, 중식 조리사자격증반, 미용기술, 의료보조원교육등(n,o) 기능사(한식 일식 중식 기능사, 미용사 양장기능사 출장요리 한복기능사, 도배기능사 옷수선창업(p). 기능교육(기능사, 자격증취득 관련과목), 전문인 양성과정(q).

직업교육영역에서는 취업과 창업 및 재취업에 관련된 제반 능력과 기술 그리고 직장에서의 성차별 대응책과 직업의식 등이 추종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영역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프로그램을 특정한 경우도 있었는데 제보자(g)의 경우에는 독특한 경험을 공유한 집단별 교육프로그램(한부모 가족, 난치병자녀 엄마모임, 이혼을 생각하는 결혼위기 여성들 모임 등)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지적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프로그램이 세워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3.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에 대해 제보자들로 하여금 제한 없이 선택하게 하였고 그 이유를 들게 하였다. 먼저 <표 2>를 보면, 중점 영역에 대한 빈도가 나와 있는데, 여성의식이 가장 강조되어야 하며(8명) 그 다음으로 시민참여교육(7명)과 직업교육(6명)이 그리고 가정경영교육(3명)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제보자들은 응답하였다. 여가·취미·교양 교육은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하는 제보자가 아무도 없었다. 각 영역별로 중점을 두는데 의견을 제시한 경우 빈도를 분석한 것이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 중점 영역에 대한 빈도

구분	제보자 번호	빈도
여성의식	1, 4, 5, 7, 8, 11, 12, 14	8
여가 취미 교양		0
가정경영교육	3,7,9	3
시민참여교육	3,5,6,7,8,12,14,	7
직업교육	7,8,11,12,13,16	6

제보자들의 응답을 자세히 살펴볼 때 여성의식은 어느 영역 보다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경향을 보였다.

“왜냐면 먼저 여성의식이 있어야 현재의 자기를 알 수 있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직업교육은 법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는 여성이 취업하기에는 현실적 불평등함이 있기 때문이다(l).”

특히 여성의식부분에 있어서 집단상담을 통한 치유를 강조한 응답도 있었는데 제보자(d)의 가난한 여성들을 접해 본 경험적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응답은 주부들의 억압된 측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치유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모두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꼽으라면 집단 상담을 통한 자기 치유와 자기 강화, 스트레스 해소, 자기 표현법을 들겠습니다. 여성들, 특히 가난한 여성들의 경우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유되지 않고 속에 쌓여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때문에 자아 존중감이 낮고 스스로에 대해 자신 없어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집단 상담을 통해 여성들은 모여 자신을 내보이고 서로 위로하며 힘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아 존중감이 생겼을 때 다음 단계로 한 걸음 내딛기가 수월해 지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d)

그러나 여가·취미·교양은 누구도 강조하지 않아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이 포화상태임을 반영하고 있다. 가정경영교육은 연구자집단이 주로 강조하고 있는데 주부들의 요구도에 관한 조사에서도 가정경영교육에 관하여 ‘합리적 가정운영, 자녀양육 및 교육, 부모자녀관계증진, 노후생활설계 등 가정경영 및 가족관계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에는 비교적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이기영,이승미,송혜림,2003). 가정경영영역 중 자녀와 부모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윤리교육을 강조한 제보자(i)도 있었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편만해 있는 가족이기주의를 비판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는 행위자(agent)로 주부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참여교육은 연구자집단과 실무자집단이 골고루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비해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주부들의 요구도는 가장 낮았다(이기영외,2003). 따라서 교육을 제공하는 입장 또는 여론선도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강조할 때 주부들의 이 분야에 대한 낮은 요구도를 감안하여 요구도가 높은 영역에 끼워 넣는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은 전문가집단에 비해 실무자집단이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을 묻는 물음에 대하여 위의 표에서 분석한 것 이외에 제보자들이 제시한 별도의 의견도 있었는데, 먼저 어떤 제보자들(e,q)은 주부의 계층이나 상황에 따라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이 다르다는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저소득계층은 직업교육 중심으로, 중산층은 시민참여교육이나 여성의식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하였다. 또 한 제보자(o)는 위의 모든 영역에서 ‘의식함양’교육과 ‘공동체훈련’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 IV.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1. 주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소요기간

주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소요기간에 관한 제보자들의 의견은 교육내용별 또는 프로그램내용에 따라 달라져야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제보자(a)과 (e)는 강연 중심의 1회성부터 6-8회를 제시하였다. 제보자(c)은 영역별로 각기 상이한 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① 여성의식 : 분기별 2시간 정도의 강좌 ② 여가, 취미, 교양 : 1~2개월 단위 ③ 가정경영교육 : 1일 워크샵 교육 ④ 시민참여교육 : 분기별 2시간 정도의 강좌. ⑤ 직업교육: 내용에 따라 6개월 ~2년 제보자(i)은 '특정하기 곤란하나 기간 설정은 정기적인 교육목표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적인 교육은 중장기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부들의 특성에 맞게 소요기간이 다양해야한다"는 견해도 있다. 제보자 (a)는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주부를 위해 교육내용을 범주화한 후 분기별로 회전식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제보자(b)는 '주부들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간과 시간대가 다양하고 유연하게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간 및 시간대가 다양하고 유연해야 합니다. 자녀 학령기의 전업주부를 위한 낮 시간대 교육과 저녁에만 시간이 나는 주부들을 위한 저녁 프로그램들은 짧게는 2-3주에서 한달, 길게는 3-4개월 또는 한 학기 단위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노인봉양이나 육아 때문에 집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로 인터넷을 통한 교육도 필요합니다."(b)

한 편 시간제한에 대해 언급한 제보자들은 한 강좌만 소요기간에 대한 제한을 한 시간 반-두 시간으로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고(d,p,r), 한 달간 주 3일 교육을 실시하되 하루에 3교시를 넘지 않으며 1교시는 50분(실습을 반드시 포함)으로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다(f). 3-4개월을 기본단위로 삼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과정을 개설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k,m,n,o,q). 제보자(j)는 "집중력 때문에 2-4개월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이 하나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매주 3시간씩 6개월짜리 교육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고(g), '주1회 1일 2시간씩 6개월에서 1년'을 주장한 한 경우도 있었다(r).

특정기간제한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feedback을 강조하거나(h)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i)고 강조한 제보자들은 그 동안 주부교육의 단속성이나 일회성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j)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당 시간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심도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연장가능이 가능함'도 언급하고 있다.

주부교육의 시간과 기간 등은 교육의 목표와 주부들의 특성에 의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교육목표의 심각성 정도는 소요시간을 그리고 주부들의 특성은 낼 수 있는 시간과 집중 시간 등에 영향을 줄 것이다.

##### 2. 프로그램의 개발방법

프로그램의 개발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먼저 기초 수요조사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시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속 수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b)이외에 제보자들의 의견은 먼저 주부들의 수요를 강조한 경우와, 전문가의 개입을 강조한 경우 그리고 주부들의 욕구와 전문가적 견해가 적절히 조화되는 것으로 대별되었다.

먼저 주부들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거기에 전문가적 입장을 끼워 넣도록 제안하는 제보자들은 주부들의 관심의 교육의 핵심이라고 보는 관점이다(a,d,h,l,m).

"우선은 수요에서 출발해야지요. 아무리 좋은 교육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수요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그 노력과 비용만 아깝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일 주부들의 관심이 교육 기획자의 의도와 다르다면 그 접합 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주부들이 여행에 관심이 많다면 여행과 환경 문제를 접합하여 갯벌 체험을 기획해 본다든다 하는 식으로요."(d)

주부의 수요를 보다 강조하는 제보자들이 주부의 수요를 위주로 하고 전문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은 그 동안 주부의 수요파악이 관심을 못 받아온 것에 대한 비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주부들의 수요파악에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다. 제보자(a)의 의견을 보면, "주부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수요조사도 전문가가 제시한 바탕위에서 선택하는 식이 아니라 진정한 욕구를 탐색해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주부욕구조사에 이미 전문가가 범주화해놓거나 구성해놓은 교육프로그램의 방향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지요. 하여튼 주부의 수요를 위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a).

주부들의 수요와 전문가의 역할이 절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제보자 가운데에는, "주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부분은 주부로부터 얻고 주부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주부에게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로부터 얻자."고 하는 제보자가 있고(h), "절충방법은 수요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되 그에 대한 조사와 프로그램 기획 및 교과과정 형성에 전문가의 의견과 인력을 투입하자."는 제보자들이 있었다(m,n,o) 제보자(p)는 이들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특히 여성의식의 전환 부분에서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기존 주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하며, 각 분야별 최근 신기술, 이론 및 시장 조사를

참고로 하고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근거로 한 교육수요 분석 등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문가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들과 달리 전문가의 개입을 강조한 제보자들은 (c,q,r) 기존 교육프로그램의 수준과 전문성 등에 의문을 갖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주부의 수요를 무시하지 않되 주부들에게 고급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거나(q), "전문가적 입장에 근거한 교육과정 구성과 주부의 수요를 적절하게 조화할 것"(r)을 제안하고 있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교과과정을 개발하되...비용을 부담하는 주부의 수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동시 고려한다."는 입장(f)도 있다. 그 때 프로그램은 주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여가취미프로그램(가정교육 프로그램 일부, 직업교육)과 무료의 시민참여 교육 등을 적절하게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 제보자 (j)의 경우는 전문가의 입장이 중요한 이유를 '주부들의 수요만을 중시할 경우 주부들의 기존의 존재양식을 반영할 따름'이라는 데에서 찾는다.

"교육대상에 따라 다르겠으나 주부중심 교육의 경우 교육 요구,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하지만 수요만을 중심으로 할 경우 기존의 교육 내용에서 탈피하기 어렵고 전통적인 주부 역할 및 정체성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으므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주부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적 입장이 반영되어야 함.(j)"

기타 "독특하면서도 의미 있는 의견으로 일반적인 것에 주부 수요 및 사회적 수요를 적절히 조합하자."는 의견이 있고(i), "프로그램의 개발은 '본인이 주부인 전문가인 사람들'의 토론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다(g). 즉 수요자이면서 동시에 전문가인 특성을 한 인격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발의 주체가 되도록 하자는 의견인 것이다. '실습위주의 교수학습안의 개발이 가장 결정적 요인'(f)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 3. 주부교육담당자

주부교육담당자로 누가 바람직한 대상인가에 대한 제보자들의 응답은 대부분 전문적인 강사와 주부교육을 통해 발굴되고 양성된 강사의 조합을 선호하였다. <표 3>에서 무응답 2건을 제외한 제보자의 87.5%가 이에 해당한다. 제보자들의 응답에는 주부강사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함께 주부교육 강사의 바람직한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제보자들은(d,j) "정보화 영역 등 여러 전문적인 고급과정의 내용에서는 전문 강사가 필요하고 생활이나 의식에서 교육대상자들과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주부강사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주부교육초기나 전문성이 조금 높은 부분에서는 '강사도 우미제도'를 통해 교육에 대한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

제보자도 있다(f). "심화교육을 거쳐 자격을 구비하는 주부들이 강사가 될 수 있다"고 한 제보자(g)도 있다.

<표 3> 강사의 구성

구분	제보자 번호	빈도
전문적인 강사	9,18	2
주부교육을 통해 양성된 강사		0
전문 강사 + 주부강사	1, 3, 4, 5, 6, 7, 8, 10, 11, 12, 14, 15, 16,17	14

"전문적인 강사와 주부교육을 통해 강사의 발굴과 양성 조합이 바람직하지만 강사의 발굴과 양성이 용이하지 않은 교육 시행 초기나 비교적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강사도우미 제도를 활용할 필요 있음, 교육에 대한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유인책으로 작용(f)"

" 일단은 현재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의 인력 풀을 작성하고 여기서 강사진을 꾸미되, 차후에는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생 중에서 심화교육을 받거나 자격을 구비하는 인사들로 강사진을 보충하면 될 것 같다(g)."

주부교육을 통한 강사의 발굴이 줄 수 있는 효과는 "강사료와 교육활동을 통해 강주부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주부강사들이 주부들에 대한 이해가 높다"(k)는 것이며, "이러한 주부강사의 발굴과 활용은 교육대상인 주부들의 동기부여에도 보탬이 된다"(j)고 볼 수 있다. 현재 주부강사를 발굴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보자(k)가 일하는 서울중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처럼 인턴강사제와 추천 강사단 사업은 앞으로 주부강사진을 발굴하고 양성하는데 현실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

"우리 센터에서는 수료생들의 강사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격을 갖춘 수료생을 대상으로 인턴 강사제를 실시하여 강사로서의 적응훈련 및 경력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훈련된 이들을 심사하여 타 유사기관에 강사로 추천하는 추천 강사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k)

제보자들의 응답에는 주부교육 강사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러한 특성들을 보면 제보자(d)와 같이 "실제로 주부의 경험을 가지면서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강사가 교육대상자의 교육 후 전망이나 내적 변화에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양성평등의식 및 여성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j)는 의견이 있었다. "주부들의 특성을 잘 알고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에는(k) ”주부교육에는 전업주부집단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필요하며 경험상 남성강사들이 이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교육담당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발굴한 주부강사와 전문 강사의 인력은행 운영’(d), ‘기존 강사의 인력 풀을 만들어 운영하고 차차 수강생 중 심화교육을 받거나 자격 구비한 인사들로 보충’(g)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4. 주부교육 대상 세분화의 기준

주부교육 대상 세분화의 기준으로는 교육목표와 내용 혹은 관심주제별로 교육대상을 세분화할 것을 12명의 제보자가 언급하고 있고, 본인의 연령과 자녀의 연령 혹은 가족생활주기 등 연령요소는 10명의 제보자가 언급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교육목표별로 참가대상을 특정하자는 의견에 7명의 제보자가 답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 세분화가 5명 계층별 세분화가 3명 취업여부와 학습능력 등이 각각 1명 언급하고 있다. <표 4>에 교육대상의 세분화에 대한 기준을 제보자들이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빈도가 제시되어 있다.

<표 4> 교육대상의 세분화기준

구분	언급한 제보자	빈도	
지역	2,3,6,10,15	5	
계층	1,5,17	3	
연령	본인	2,8,9,10,11,17,18	7
	자녀(가족생활주기)	1,3,5	3
취업여부	1	1	
학습능력	10	1	
교육목표와 내용 혹은 관심주제별	2,3,4,6,7,8,9,10,12,13,16,18	12	

제보자별로 제시한 대상세분화에 대한 의견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용의 세분화가 대상의 세분화보다 중요함을 강조한 제보자(b)는 “프로그램의 내용자체가 세분화되어 따로 대상을 세분화하지 않아도 자연히 같은 관심사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b)라고 하고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의견이면서 프로그램의 내용별로 세분화의 기준을 다르게 하자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가족 관련 교육이라면 가족별 형태나 생애주기별로 나누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부모 되기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한부모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특별히 구성하여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이

혼이나 사별로 인해 본인의 상처와 함께 아이들의 상처도 크고 그만큼 고민도 많기도 하고 그 내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식 관련 교육은 주부들의 상태와 관심 정도에 따라 난이도를 다르게 하여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d)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나 고려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의 의견이 모아진다. 제보자(a)는 그러한 요인들 가운데 ‘계층 자녀의 연령과 취업유무가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자녀교육과 가족건강관리부분이 본인의 연령보다는 자녀의 학령이나 자녀 연령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취업여부로 볼 때 취업주부는 직업의식이나 직장 가정양립기술 건강관리 등이 주요 관심거리이고 비취업주부는 취업관련 요구가 클 것이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고 있다.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제보자들의 경우에는 “주부들이 규칙적으로 긴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며”(g)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역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이 모집과 운영에 용이하다”는 의견을 보였다(f,o)

5. 바람직한 교육방법

바람직한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제보자들이 기존 교육방법을 비판하면서 주부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강의위주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다양한 교육방법이 앞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제보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먼저, “교육방법은 교육내용과 대상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a,b,e,g,k)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시작은 소모임이 좋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단, 교육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됨을 지적하고 있다(j).

“소규모 그룹에서 출발하여 나름대로 맞는 방식을 만들어나 가는 것(b)”

“특히 토론식 수업이나 소모임 활동과 같은 교육방법은 ‘여성 의식’ ‘지역사회참여’와 같은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해 볼 수 있으나, 이는 교육담당자의 주부의 특성이나 교육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j)”

주부교육에 알맞다고 추천하는 교육방법으로는 몇 가지 방식의 조합 또는 병행(c,g,h,i,j,l,n,o,q,r)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가. 강의와 토론을 병행한 수업 +통신을 활용한 원격수업 + 동아리 활동

나. 실습과 견학을 필요로 하는 수업

다. 토론식 수업과 소모임 활동 병행

라. 강의와 실습, 소모임 지원

한 편 제보자(e)와 (f)는 재택수업을 제안하였고, 참여식 방법 (d,e)과 방송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강조하는 제보자(d)도 있었다.

“강의식은 지루하고 토론식은 부담스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모임 활동은 여가나 취미관련 내용이 아니고는 쉽지 않을 것이고 인터넷을 통한 재택 교육의 경우 그 대상이 한정된다 (집에 컴퓨터가 있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주부)는 단점이 있겠네요.

저는 일종의 참여식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전에 여성 사회교육원에서 독일의 아테나워 재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던 민주시민교육방법이 아주 좋았습니다. 회의 진행이나 교육을 게임 방식으로 재미있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준까지는 게임을 통해 서로 확인하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강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강사는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교육을 하는데 이전에는 강의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럼 마치겠습니다...뭐 이런 식이었다더군요. 그런데 여기에 별 집이라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옆에 두, 세 사람씩 짝을 짓도록 하고 간단하게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럼 별집이란 이름이 붙은 건 이렇게 하면 별집에서처럼 여기저기서 응용거린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북한에 대해 알고 싶은 것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이 정말 북한에 대해 궁금한 것-예를 들어 북한에도 스타가 있나? 등을 묻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무언가 얻어갈 수 있었다고 평가도 좋았다고 하구요. 주부 교육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거 같군요.

아,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교육은 어떨지요. 일테면 주부 대상 아침 TV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거죠. 프로그램 담당 피디하고 고섭을 해 적절한 내용과 방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주부들이 많이 시청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효과가 아주 높을 거 같은데요.”(d)

한 편 단계별로 다른 방식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좋은 의견도 귀를 기울일만하다.

“주부교육에 있어서 관심유발이 일차적인 목표이므로 1단계로 소모임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활동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2단계는 인터넷을 활용한 재택수업이 가능할 듯.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부교육도 교육효과 면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러한 대형 강의를 통하여 소모임 활동을 통한 주부교육으로 유도하고 이것이 조직화 및 사회의 자원봉사로 연결되기를 기대(f) “

요컨대 교육방법은 교육내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점과

그 때 교육대상자의 특성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규모 그룹에서 출발하여 나름대로 맞는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이 제기되었다. 강의와 토론의 병행 실습과 견한 통신을 활용한 강의 등 가능한 몇 가지 교육방식이 제시되었으나, 강의는 지루하고 토론은 부담스럽다는 의견과 함께 참여식이 좋고 아는 수준을 게임을 통해 노출한 후 그 수준을 넘는 부분부터 강의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으며, 각 단계별로 상이한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되었다. 1차로 소모임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활동의 지원을, 2차로 인터넷을 통한 재택수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대형 강의는 소모임 창출의 pool로 활용될 수 있다.

## V. 주부교육활성화 방안

### 1. 현행 주부교육실태에 대한 평가

주부교육실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답을 피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다소 비판적이었다. 비판의 내용으로는 “계몽적이다, 시간과 장소선택이 탄력적이지 않다, 교육내용이 다양하지 않고 전통적인 주부역할인 소위 현모양처의 양성과 양재와 조리 등 전통적 여성 직업이 대부분인 구태의연함(a,j)”. “관주도적인 것이 많고 그 가운데 성공적인 것이 드물다(b)”. “서울과 대도시 위주이며 젊은 층 주부가 주요대상이며 형식적이고 사후관리가 없고 재교육 및 유지 및 보수교육 내용이 없는 운영을 한다(c).” 또한 “교육목적이 무엇인지 방향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f)는 점 특히 “공적영역에서 방향성 정립과 구체적인 교육내용부족은 심각하여 사적영역을 답습하되 질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점”(j)들이 일반적인 비판의 내용들이다. 또한 ‘지나치게 기술교육 위주인 점’(g), ‘참여자의 지적 욕구와 교육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취업 등으로 연계성도 부족한 비실질적 교육’(a,g,h,i)일 뿐이라고 진단한다.

‘종합적인 교육체계가 없어 전문적인 접근이 어렵고 인기위주의 프로그램이 복사되어 진행된다는 점’이 지적되어(o) 범위와 심도를 고려한 종합적인 교육체계의 필요성 즉 조정과 통합의 필요성이 암시되고 있다. 현행 ‘주부교육프로그램은 여성의식의 전환 및 능력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아닌 수익성 위주의 단편적 일회적 교육’이라는 진단도 받고 있다 (p,q).

한 편 많은 제보자들이 취미교육위주라는 점을 크게 비판하였다. 이는 주부라는 거대한 집단을 너무 단순하게 평가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이 너무 취미, 운동 여가 등에 치우친다는 견해이며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제보자들은 “주부가 갖는 다양성과 공통성을 잘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e,l,r)고 보았고, “취미위주의 교육이 사회주부의식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는 점(n)도 지적하였다. 취미교육위주의 주부교육현실로 인한 문제는 직업

교육에서도 드러난다.

“대부분 취미교실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여성의식향상 교육이나,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생활을 위한 교육 등이 부재하고, 직업교육은 재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발굴하기가 힘든 조건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직종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직업훈련도 취업부업으로 이어지는 직종개발이 아니라 전통적인 직종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 취미교실로 만들어지고 있다.”(k)

그러나 제보자(f)는 현행 주부교육의 내용이 산만하고 취미와 여가 중심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며 이 점을 살려 패키지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제안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건강보조식품의 선택요령, 피해방지요령 등을 제공하거나, 서예 그림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면 우리나라 미술의 역사와 그 안에서 펼쳐진 성관념 가정생활 자녀관 등 연결 가능한 무궁무진한 주제들이 있다. 따라서 기꺼이 시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부의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에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이 바람직함.”(f)

대부분의 제보자가 현행 주부교육의 부족한 점과 단점에 주목한 반면 제보자(b)는 성공사례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제보자(b)가 제시하는 현행 주부교육관련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의 특징을 보면 1)작은 지역단위라는 점 또는 같은 아파트 단지나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단위로 묶인 것이라는 점과 2) 생협이나 공동육아, 품앗이 등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작은 규모로 시작한 것 그리고 3) 방과 후 프로그램들의 부모들이 비교적 비슷한 사회의식을 가진 점과 같이 동질적인 같은 목표를 가진 것 등이 있다. 또한 제보자(d)의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자긍심을 보이고 있다.

“회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데 목적이며, 대상, 내용을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니까요(d).

## 2. 주부교육의 활성화 방안

주부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은 주부교육주제와 주부참여 확산의 방법,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방법, 기타 순으로 제시되었다. 반드시 “주부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단순한 반문을 하는 두 명의 제보자(a,j)를 제외한 나머지 제보자들의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주부교육주제

주부교육의 주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활성화 방안으로는, 먼저 “대상을 특정하여 교육주제를 잡자.”고 하는 의견(a,b)이 있는데, ‘미혼여성가장/이혼하여 혼자 사는 여성 또는 편모 등 주부라는 말이 주는 억압적 함의를 벗어날 수 있는 주제’(b)와 ‘주부들이 교육을 필요로 하여 모여 있는 곳 즉 부녀회/정당의 여성모임 등을 찾아가 알맞은 주제를 발굴하기’(a)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의 특성으로는 ‘일반적으로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주제’(c,h), ‘수요자의 요구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주제’(d)를 강조하였다.

주부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부교육주제의 선정에 필요한 것으로는 첫째, “개인적인 욕구와 가정의 필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잡되 특히 개인의 욕구를 중시해야 한다.”(e)는 점과 “수강생들의 선호도 및 강의평가 만족도를 조사한 기초위에 교육주제가 세워져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q). 둘째, “주제별 아이템의 개발은 전문가와 교육실무자의 델파이조사를 통해 실천적이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f)이 제안되었고 셋째, “학습소모임을 통해 주인의식을 가진 주부들로 하여금 주제를 찾아내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o).

### 2) 주부참여 확산의 방법

본질적인 부분에서 주부참여의 확산은 무엇보다 “주부들을 주체로 하여 주부교육을 서서히 확산해야 한다.”는 점(b)과 “주제가 참신하고 내실 있으면 확산된다.”(e,g)는 점이 강조되었고 ‘주부교육기관의 내실화 및 전문화’가 언급되었다(k). ‘저렴한 수강비와 수준 높은 강사의 확보 및 질적 향상도모’(o,q)도 주부참여 확산의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주부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왕도는 없다고 본다. 다만 그 교육이 여성들이 안고 있는 심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건설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찾아 나서고자 하는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면 필요한 사람들은 모인다고 본다. 그것이 교육의 확산과 효과에 핵심이다(g)“.

그리고 홍보가 강조되었는데 홍보의 방법으로는 ‘정보지와 전단 그리고 신문과 각종 방송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방법’(c,m)이 제시되었다. 모집에 있어서는 ‘구청 및 동 단위의 모집’(c)이 언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으로는 ‘적절한 교육 방식, 편리한 교육 시간(전업 주부를 위한 오전 교육뿐 아니라 취업 주부를 위한 토요일 오후 교육 등)’, ‘교육 장소의 접근의 용이성 고려(집 부근, 일터 부근, 어린이집 옆 등등)’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d), ‘안전하고 좋은 환경의 내실 있는 보육시설 제공, 방과 후 교실 운영 등 교육시간 중 육아문제 지원’(k) 등이 제안되었다. ‘주부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학점 인정’(k) 부분도 언급되었다.

### 3)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방법

주부교육의 활성화에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주부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활용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주도하되 교육주체 개발 및 강사료 등의 예산 지원 그리고 공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i,k,m,o), 특히 재정이 어려운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요청된다(o).

“현재 여성회관, 구민회관 등이 민영화되고 정부의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주부들이 자신들을 위해 교육비와 시간을 투자하기 힘든 우리 사회와 가족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은 지속, 확대되어야 할 것임(k).”

둘째, 실제 진행 내용 및 사후 관리 및 재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철저한 감독 후 지원대상 선정(c)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법의 하나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며 인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수료할 때 준 학위와 같은 자격부여를 검토하는 것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주부교육활성화의 방안이라고 보았다(q).

그러나 제보자(b)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한계에 대해 언급 하므로써 위의 의견들(c,q)과는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자치단체를 통해 필요한 물적 행정적 지원을 하되 주도적인 역할에서는 손을 떼야 합니다. 관료적인 사고방식과 사무처리능 주부운동에 항상 장애가 됩니다(b).”

제보자(b)의 경우 본 질문지를 통해 일관되게 주부교육에서 주부의 주체적 참여를 끌어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제보자(c)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현실에서 주부교육을 시켜본 경험을 토대로 답하고 있다.

### 4) 기타 활성화 방안

기타 주부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제안된 방안들로 제보자(c)은 “주부교육을 획일화시키기 보다는 ‘일반주부 교육프로그램’과 ‘취업을 위한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으로 2분화 시켜야 한다.”는 점과 “도시와 농촌 또는 도시 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주부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주부연령의 상한선이 너무 낮아 그 연령의 상한선을 45세정도 까지 높여야 한다.”는 점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ONE-LINE 교육과 OFF-LINE 교육시간비를 7:3 정도로 하여 채택교육 시간을 늘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녀양육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보자(e)은 ‘주부들의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에 공공성 있는 교육을 함께 묶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의 보급’을 제한하였다.

## VI. 결 론

본 논문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주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되 그 동안 간과되어 온 바 주부들을 주체로 세우려는 입장에서 교육의 잠재적 기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주부교육은 주부들로 하여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게 할 뿐 아니라 변화의 동인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가정과 사회와 적합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게 되며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 고립되기 쉬운 특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존재로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주부교육에 관한 연구자집단과 실무자집단들이 주부교육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과 교육방법에 관하여 갖는 의견을 보여주고 분석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고, 기존의 주부교육 관행에 대한 진단과 활성화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다. 개방형 질문을 통한 질적 연구를 통해 제보자들이 연구를 통해 얻은 시각과 실무를 경험하면서 얻은 생각들을 확보하였는데 제시된 의견의 스펙트럼은 아주 광범위하였다. 총 18명의 제보자들의 다양한 의견 속에는 주부교육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거나 문서화되지 못한 많은 사실들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발견된 다양한 사실들은 향후 연구자집단과 실무자집단 전체를 아우르는 모집단에 대해 양적 연구를 통한 일반화를 시도할 때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제시해 줄 것이다.

주부교육에 관한 기초적인 논의들을 알아보려했던 본 연구가 결과적으로 얻는 몇 가지 결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교육은 사회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고 성역할에 따른 부담과 제약을 돌파하며 사회주부의 역할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주부교육의 방향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각 차원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개인 차원에서는 교육적 욕구에 부응하고 자신감 향상과 자기 역할수행의 능력향상 및 직업훈련의 기회부여 그리고 사회활동기회 제공을 지향해야 한다. 가정 차원에서는 가족관계의 기술과 가족체계의 복지과 건강증진 가정경영능력의 향상 및 구성원인 주부의 행복감을 통한 활력의 확산 등을 지향해야 한다. 사회 차원에서는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에 여성적 가치를 파급하고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며 주부들의 사회참여욕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둘째, 주부교육의 내용은 사회변화전망에 발맞추는 것이어야 하며 기존의 정보나 기술적 내용보다는 시각교정이 급선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교육내용은 대체로 교육의 방향과 일치하

였는데 개인 차원의 교육내용에는 건강관리와 자기개발, 여가활동과 직업능력배양 및 공식활동기술 등이, 그리고 가정차원의 교육내용에는 가족의 건강관리 가정자원관리기술 가족관계 직장-가정양립방안 등이, 그리고 사회차원의 교육내용에는 직업활동과 자원 활동 및 시민참여를 위한 의식과 기술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 기존의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의 영역별로 제시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묻는 부분에서는 실시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들이 제안되었는데, 여성의식과 여가 취미 교양 영역의 프로그램들은 유사한 성격이었으며, 가정경영 영역에서는 앞의 가정 차원에서의 교육내용보다 좁은 범위의 프로그램들이 제시되었다. 시민참여와 직업교육분야에서도 주부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시되었다. 제보자들은 이들 가운데 여성의식 영역과 시민참여 영역 그리고 직업교육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교육의 목표와 주부들의 특성이 교육기간과 시간 및 횟수 등을 결정하는 기초를 제공한다고 보았고, 프로그램의 개발은 주부들의 수요에 철저히 근거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조정역할 기획역할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의 담당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전문 강사 뿐 아니라 주부교육을 통해 재생산된 강사들이 활동하기를 추천하였는데, 이는 주부교육대상자들의 특성에 대한 공감과 격려와 더불어 주부교육강사가 되는 주부들의 경제적 사회적 성취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주부교육의 대상의 세분화는 우선적으로 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관심의 범주별로 이루어져야하며 그 밖에 고려할 사항은 연령과 지역 순이었다. 바람직한 교육방법에서는 소모임이 강조되었으며 단계별로 다양한 방법의 구사, 교육내용별로 적합한 방법의 개발, ON-OFF LINE의 병행 또는 다양한 방법의 조합이 주부들의 특성에 맞게 응용되도록 제안하였다.

다섯째, 주부교육에 대한 현황평가로는 취미·교양·여가위주의 교육과 기술적 교육을 비판하였고 종합적인 교육체계의 부재로 산재한 교육기관간 자원의 공유와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성공적인 사례의 특성으로는 작은 지역단위로 공동의 관심에 근거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모임에서 시작된 점을 들었다. 활성화방안으로는 수요가 반영되고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주부교육 주체의 발굴과, 교육내용의 내실화 및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와 지역단위 모임을 통한 참여의 확산, 정부의 재정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지원 등도 거론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감독 감시 지원대상사 선정 등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충되었다. 끝으로 일반주부교육과 취업주부교육으로 이원화하기 및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살린 교육의 확립 등도 제안되었다.

주부교육에 관해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여성사회교육 차원이 아닌 주부교육 차원에서 기본적인 논의를 시도 하였는데 의

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여성단체관련자로부터 보다 급진적인 여성단체 관련자 및 중산층과 저소득층 여성대상의 교육 관련자 그리고 민간단체로부터 정부와 관련된 기관과 연구기관에 이르기까지 각각 한두 명 씩 다양한 제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므로써 최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집하여 추세를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다. 단, 각 연구자와 실무자가 왜 그러한 의견을 갖게 되었는지 주부교육과 관련된 제보자의 경험 또는 제보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속성에 연결시켜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가 기초적인 연구만큼 한계도 뚜렷하지만 또한 편향후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도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 먼저 연구의 한계로부터 살펴본다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여러 가지 응답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의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하지 않았다. 만약 이 두가지 분석이 이루어 진다면 연구자들이 품은 주부교육의 방향에 따라 교육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방법 및 활성화방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응답자들의 특성은 바로 주부교육의 이념과 내용 및 방법을 생산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주부교육의 한계를 돌파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부교육의 주제와 주부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그들의 가치가 어떻게 다르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의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향후 추진되어야 할 연구문제를 보면, 첫째, 본 연구에서 다른 실무자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그들이 소속한 기관의 주부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에 비추어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무자들이 품은 생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여건 또는 장애를 규명하는 것이 주부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둘째, 실무자들이 소속한 기관의 피교육생인 주부들로부터 프로그램의 전반에 걸친 평가를 받아 실무자들의 견해가 조정될 부분은 없는지도 규명되어야 한다.

실천적 과제로서는 주부교육에 대한 공론화와 조정 및 자원의 공유에 따른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주부를 포함하여 주부를 주제로 삼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협의체의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 보여주었듯이 주부교육전반에 걸쳐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주부교육의 실체는 바로 이들의 의견의 다양성처럼 다양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성이 공존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또는 공존할 수 있는가 폐기되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물음을 통해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바람직한 주부교육을 세워가야 할 것이다.

향후 주부교육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본 논문에서 제보자들이 귀중하게 내 준 의견을 고려하여 바람직



한 주부교육이 세워지고 주부개인과 가정들 그리고 우리사회가  
그로 인한 좋은 성과를 돌려받기를 기대한다.

- 접수 일 : 2003년 05월 15일
- 심사 일 : 2003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08월 14일

### 【참 고 문 헌】

- 곽삼근(2001). 21세기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주최 국제 세미나-21세기 한·일 여성평생교육의  
현황과 발전전망-자료집. 47-76
- 김미량(2002). 우리 나라 여성정보화의 현황분석과 정보화를 통한 여성  
삶의 질적 변화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29-42
- 김선디·이승미(2000). 가사노동을 통한 주부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논  
의. 한국가정과학회지, 3(2), 47-57
- 김재진(2001). 여성평생교육의 발전배경.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3-22
- 김태룡·민무숙·김영옥·김선미·양순애·진미석·주재선(2001). 여성인  
적자원개발 및 활용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여성부
- 데니스 하트(2001). 한국의 주부와 개발의 정치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47-66
- 이기영·이승미·송혜림(2003). 지식정보화사회 조성을 위한 주부의 인  
적자원개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129-143
- 조용환(2002). 질적 연구. 서울교육과학사
- 통계청(2003). 경제활동인구연보